

# 공공외교 나선 정현을 시장

### 익산시, 대표단과 중국 연길시·칭다오시 현지 기업·정부 기관 만나 적극투자 유치

중국 출장 중인 정현을 익산시장(연길(연지)시와 칭다오(칭다오)시)를 오가며 '익산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익산시장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익산시 대표단은 지난 13일 연길시와의 우호협력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중국과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단은 지난 14일 최대 중국동포 특화식품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천우그룹의 전규상 회장을 만나 식품·바이오 관련 산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한 식품 산업과 바이오 관련 투자 유치 홍보 등이 이뤄졌다. 정 시장은 이번 출장에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인들과의 만남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연길시에서는 환경식 연변한국인(상)회 회장을, 칭다오시에서는 문체시 재칭다오 전북도민회 회장을 각각 만나 중국 내 식품·관광



산업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익산시는 한인회를 상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익산의 비전을 공유, 백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관광과 K-푸드의 대표주자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 유치 홍보를 진행했다. 오는 17일 오전에는 김윤희 칭다오 코트라(KOTRA) 무역관장을 만나 중국 식품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익산시 주요 농수산물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한다. 이어 오후에는 류창수 칭다오 총영

사와 도시 간 문화 교류 다양화, 경제 분야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성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정 시장은 중국 현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오는 10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한상대회)에 대한 참석 독려와 익산시 방문도 요청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출장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여는 위대한 도시 그레이트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는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

### 익산시의회, 대학생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 모색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는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 이 대회에는 원광대학교 학생 30명 정도가 참가했다. 학생들은 4개 팀으로 나눠 지역 현안에 관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해 이날 경연을 펼쳤으며, 이에 앞서 김진규, 김충영, 양정민 의원이 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실시하고 학생들과 멘토링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높은 열의와 관심 속에 치러진 이번 경연대회의 의제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구해조 팀) △익산시 청년 자력증 지원정책(호랑이 팀) △대학생 모의의회 조례 제정 필요(의회 알뜰이 팀) △익산시립도서관 활성화 방안(불사조 팀)이며, 지역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돋보였다. 경연대회 개최 결과 대학생들의 시

정참여 의식을 높이고 모의의회를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학생 모의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한 '의회 알뜰이 팀'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으며, 도서 관련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시립도서관 활성화를 추구한 불사조 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동연 부의장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경연대회에 참가해주신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익산의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 참가학생들을 지도한 원광대학교 행정인문학부 이동기 교수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익산의 미래를 디자인해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지방의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대외로 향후 지속가능한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1830억원 투입

### 아동친화 예산서 발간... 전체 예산의 11.4% 차지

익산시가 아동 친화 사업을 적극 발굴해 완성도 높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아동 친화 사업규모는 총 1,830억 원으로 전체 시 예산의 11.4%를 차지한다. 익산시는 올해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친화도 6개 영역에 '아동친화 예산'을 분석해 예산서를 발간했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은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이다. 영역별 예산으로는 교육환경이 31%

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안전과 보호 27%, 보건과 복지 17%, 가정생활 16%, 놀이와 문화 8% 참여와 존중이 1%를 차지했다. 또한, 영역별 사업수 비중은 교육환경이 24%, 놀이와 문화 19%, 보건과 복지 19%, 안전과 보호 17%, 가정생활 14%, 참여와 존중 7%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사업으로 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아동의회 운영, 아동관리 모니터링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6개 부서의 318개 사업이 해당한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해, 아동의 올바른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 콘텐츠를 운영 하고 있다. 아동친화예산서는 매년 상반기에 발행되며,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익산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에 활용될 계획이다. 익산시는 지난 2021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내년도 상위단계 인증을 위해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2024~2027년)을 수립하고 사업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국가산단·일반산단·농공단지 방역소독 본격 실시

군산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하고 쾌적하면서 안전한 환경으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일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방역은 이달 5일부터 10월까지 국가 1·2산단단지, 일반산단, 농공단지(임피,서수,육구,선산)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2회 이상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7~8월 하절기에는 하수관 우수관 하천 주변 등 병해충 발생이 많은 곳과 이면도로, 공원 녹지구역에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파리나 진드기 모기 등 해충들이 서식하기 좋은 산업단지 내 하천 주변과 도로 배수로, 공원지역, 오식도 원룸 내까지 풀숲에 차량 분무 소독과 연막 소독을 병행하기 때문에 군산시

는 쾌적한 산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들이 방역 요청 시에는 방문 소독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방역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 기업들의 여름철 작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교통 안전 확보 총력... 사고 잦은 곳 개선

익산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8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구간은 3개 장소로 모현동 서부보훈지청사거리, 모현도서관사거리, 동익산사거리~동산동 우남아파트 사거리이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교통안전

증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시는 해당 지역이 그동안 신호 위반과 추돌사고가 주를 이룬 점을 고려해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춘 시설장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원활한 차량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신호대기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전주매일 캠페인